

# 인민의 마음속진정을 노래한 시대의 명곡

얼마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표창을 수여받은 중요예술단체 창작가, 예술인들을 만나시고 축하해주셨다.

노래 《우리의 국기》를 비롯하여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시대의 명곡들을 창작형상한 이들의 소회를 높이 평가해주시며 자애로운 한복에 안으시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그의 값높은 평가와 사랑속에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음악예술로 새로운 전진의 시대, 력동의 시대를 추동해나 가시려는 숭고한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다.

지금 어디에 가나 국가수훈을 받은 예술인들이 형성한 노래들을 즐겨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일손을 잡으면서도, 짙막한 휴식차에도, 또 깊은 밤이 이르지 않 불밝은 집집

의 창가마다에서도 울려나 온다.

노래 《우리 어머니》와 《그 정을 따르네》,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어머니》...

온 나라 인민들이 꼭 하고 싶었던 말, 심중에 고백하던 고타움의 진정이 다 담겨진 노래들이기에 누구나 그 어디서나 즐겨 부른다.

진정 오늘의 참된 삶만이 아닌 태일의 휘황한 미래도 다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품은 이 세상에 오직 어머니당밖에 없기에 그 사랑을 날에 날마다 때부루 절감하며 사는 이 나라의 모든 자식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그 따뜻하고 넓은 품을 격경에 넘쳐 노래하는 것이다.

노래 《우리 어머니》는 부를수록 가슴이 뜨겁게 젖어 든다.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처럼 근심많은 어머니 어디 있더냐》, 이 구절을 빼고는 뒤구절을 이룰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가정의 어머니구실도 하기 힘든데 이 나라 모든 가정을 보살피는 어머니가 되어서 새벽길도 습눈길도 마다하지 않았고 걸으시는 경애하는 그의 로고가 사무처와 목이 메어옵니다.

이것은 은과군 대청리의 한 녀인만의 심정이 아니다.

큰물로 집과 가산을 잃었던 만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과 로고속에 본래 살던것보다 더 크고 훌륭한 집을 무상으로 받아안고 감격에 호느끼던 피해지역 사람들모두가 터치는 마음속고백인것이다. 아니 그 품에 생을 둔 이 나라 천만자식들이 한목소리로 웨치는 고마움의 토로이다.

노래에도 있듯이 경애하는 그의 하루하루는 동트는 새벽문을 먼저 열고 습눈길도 앞서 걷는 로고의 낮과 밤으로 이어지고있다.

그런 밤들에 그이께서는 인민들을 행복의 요람에 잠재우시고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 무궤도전차의 시운전을 지도해주시며 미흡한 점이 하나라도 있을세라 보살펴주시고 그런 새벽들에 온 나라 자식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헤아리시며 좋아라 웃고 떠드는 사람들과 아이들의 모습에서 쌓으신 피로를 잊으셨다.

하기에 인민들은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속에 주운줄 몰랐고 외진 곳에 있어도 두려움줄을 몰랐다.

이런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살수 없기에 인민은 노래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처럼 제일 좋은 어머니 더는 없으리 열백년 이 땅에 다시 태어나다 해도 어머니의 품에서만 살고 싶으라 ...

참으로 천만자식들을 돌보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과 헌신, 그 어떤 모진 시련이 중첩된다고 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일견단심 믿고 따를 인민들의 불같은 의지가 구월구절마다에 맥박치는 명곡이다.

위대한 시대는 수많은 명곡을 낳아 마련이다.

그 손길 한번 강토에 비끼면 황량하던 폐허에도 온갖 꽃이 만발하고 거인의 그 손길 창공을 가리키면 전설속의 천리마 배굴을 안고 나는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이 이 나라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며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었기에 인민은 세상에 돌도 없는 어머니를 모신 증거와 자부심을 소리높이 구가하며 찬란한 그 령도따라 휘황한 미래로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것이다.

따뜻한 봄빛이 한창 무르녹던 주제80(1991)년 5월 어느날이었다.

그날 일군들을 만나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부드럽고 인정미가 넘쳐흐르는 환하신 안색으로 민족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바치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다가 이런 교시를 하시는데였다.

《수령님께서 지난 기간 총련일군들과 동료들이 조국을 방문하면 모든 시업을 다 뒤로 밀어놓으시고 몸소 그들을 뜨겁게 맞이하여주시고 그들이 지짐으로 삼고나갈 교시도 하시고 진이 연회, 오산까지 배회해주고 하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80교령이 다되신 수령님께서 조국을 방문하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과의 사업을 계속 그렇게 하실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교시 한마디 한마디는 일군들의 가슴을 찔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 몸이 지니시고 불바다 만리, 눈보라 만리 그 머나먼 길을 한평생 쉬임없이 걸어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었다.

수령님께서 널리하신 품은 온 나라의 크고작은 모양이

든 일을 다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조국에 왔다면 제일로 기뻐하시며 한없이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친어버이사랑과 안정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시는 때 그 인덕에 감동되고 목메어울이나 알았지 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에 대하여서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자신들이 돌이켜져 얼굴이 뜨거워

만나주겠습니다.》

일군들은 일시에 막혔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함없는 흙모와 감사의 정에 겨워 장군님을 우러랐다.

그렇다. 불세출의 위인이 하던 일은 반드시 그와 똑같은 천출위인만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어버이수령님과 똑같은분 이시라고 만민이 칭송하며 경모하는 위대한 장군님, 그이께서는 수령님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드리고 수령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것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시였기에 혁명과 건설의 중추를 한 몸이 걸머지신 자신의 어깨에 총련과 재일동포사업이라는 무거운 짐을 또다시 덧놓으시는 것이었다.

일군들이 환희와 자책의 엇갈림속에 휩싸여있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얼마전 조국을 방문하였던 총련부족의 장을 그냥 돌려보냈는데 그를 만나 밤이라도 한기 대접해보았더라면 좋을것 같겠다고 저이기 아쉬워하시는데였다.

순간 일군들은 가슴뜨거워 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 《내가 그들을 만나주겠습니다》

울랐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친어버이의 그 끝모를 넘려와 사랑을 과연 누가 대신할수 있으며 하해같은 그 품에 한번만이라도 안기고싶어하는 자식들의 열망을 그 무엇으로 막을수 있단 말인가.

일군들은 안라까운 가슴만 부여잡을뿐이었다.

이때 방안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며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시 저력있게 울리었다.

《그 공간을 이제는 내가 대꾸하고 합디다. 총련일군들이 앞으로 조국을 방문하면 내가 그들을

지켜드리고 수령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것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시였기에 혁명과 건설의 중추를 한 몸이 걸머지신 자신의 어깨에 총련과 재일동포사업이라는 무거운 짐을 또다시 덧놓으시는 것이었다.

일군들이 환희와 자책의 엇갈림속에 휩싸여있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얼마전 조국을 방문하였던 총련부족의 장을 그냥 돌려보냈는데 그를 만나 밤이라도 한기 대접해보았더라면 좋을것 같겠다고 저이기 아쉬워하시는데였다.

순간 일군들은 가슴뜨거워 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 제힘으로 만단을 이기며 승리만을 조선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다.》

이것은 공화국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 말속에는 불가능을 모르고 기적과 전변만을 안아오는 공화국인민들의 개별불굴의 투쟁정신과 의지, 자기의 힘에 대한 굳은 믿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

불가능은 될 수 없거나 할수 없는것을 뜻하는 표현이다.

사건에는 이런 단어가 있을 지언정 공화국의 흥라는 70여년 력사에는 불가능이라는것을 찾아볼수 없다.

세인이 할수 없다고 했던것도 조선은 보란듯이 해냈고 화를 복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다.

70여년전 침략적인 외세에 의해 조선에서 전쟁의 불길아 타났을 때 세사람들은 미국과 맞서싸우게 될 신생조선의 운명을 두고 우러의 시선을 보내고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공화국은 창건된지 이제 불과 2년도 채 안된 청소년 나라였다. 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도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었다.

반면에 상대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있어서 비할바

없이 우세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이었다.

하지만 세인이 원자관과 보병총의 대결이라고 일컫는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이것은 조선이었다. 전쟁이 개시되어 몇시간도 안되어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가 3일 만에 서울을 해방하였으며 프롤라비행기로 현대적인 분사식비행기를 쏘며구고 어뢰정으로 적중순양함을 격침시키는 등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기적들을 련속 창조하고 승리의 7.27을 안아온 조선을 두고 진보적인류는 《영웅의 나그》라고 격찬하였다.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시대에는 또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창조되었는가.

모든것이 파괴되어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었던 조선을 두고 당시 적대세력들은 백년이 가도 일떠설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화국은 짧은 기간에 복구건설을 끝내어 전쟁전수준을 회복한데 이어 전진과 비약의 나라를 펼쳐 펼치였다.

6만대의 공청능력을 가진 압연기에서 12만대의 강재가 생산되고 19만대어려하던 용광로에서 27만대의 선철이 쏟아져나왔다. 30여일만에 첫 《천리마》호프락모드가 태어나고 《승리》호차동차와 굴착기, 볼도벨들이 보수되며, 기술신비주의를 불사하며 대지를 내달리었다. 17~18살밖에 안되는 녀성들로 조직된 고기배 《녀성》호가 바다로 나가 75hp, 100hp이신 첫 해계척의 길을 연것도, 건설부분에서 7천대배수로 단 한해사이에 2만여대의 수림집을 건설하는 기적이 창조된것도 이 시기였다.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실생활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남들이 한걸음을 내질 때 열걸음씩걸음으로 내달리는 공화국을 가리켜 세사람들은 《기적의 나라》로 부르며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공화국에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는 가장 어렵던

시기였다.

당시 적대세력들은 《조선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떠들면서 그 무슨 《3. 3. 3붕괴설》까지 내뿜었다.

하지만 조선의 사회주의는 무너진것이 아니라 더욱 굳세어졌다. 나라의 종합적인 국력을 과시하며 인공지구위성기 우주로 날아올랐다. 전국의 토지가 사회주의당파로 전변되고 도처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 강국건설의 대동로가 열리는 조선의 모습은 경이적인것이였다.

최근 10년여간에도 공화국에서는 세월을 주름잡으며 창조와 전변의 위대한 력사가 수놓아져왔다.

조선에서 새로운 병진로선이 천명되었을 때 공화국의 발전을 달가워하지 않는 적대세력들은 《두가지로 동시에 성공시킬수 없다.》, 《실현불가능한 로선》이라고 시비중상하였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불과 4년, 공화국은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의 완성을 온 세상에 자랑스럽게 선포하였다.

그러면서도 거의 해마다 옹근 하나의 새 거리가 일떠서고, 이르는 곳마다에 먼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인민의 보급자라들이 후후죽순처럼 솟아나는 조선의 현실을 두고 세상사람들은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천지개벽하는 조선의 발전속도야말로 신화적인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라며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혹독한 시련과 난관이 겹쳐졌던 지난 한해에도 온 나라가 떨쳐나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인민의 행복을 더욱 꽃피우는 공화국에서는 뜻깊은 이해에도 인민들에게 줄 수도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힘차게 벌어지는 등 도처에서 놀라운 기적과 혁신적성공들이 이룩되고있다.

참으로 공화국이 걸어온 70여년의 력사는 최약의 역경속에서도 더 높고, 더 빨리 전진해온 승리와 영광의 력사였다.

## 노란유림주목, 선유림주목

본사기자 리경월

이 선물식물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주제79(1990)년 11월 뽕소가 볼레스프라시제수 목원 원장 박사 예지 배우레즈끼가 삼가 올린것이다.

배우레즈끼는 이름있는 식물학자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속에서 조선의 중앙식물원이 과학지식보급기로 훌륭히 꾸려진데 대하여 부러움을 금치 못하면서 그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있었다.

인민들이 언제나 행복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해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성의를 표시하고싶었던 그는 수목원의 주목들 가운데서

모양이 제일 곱고 수세가 좋은 것으로 골라 특별히 관찰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자라왔다.

배우레즈끼는 조선의 한 대표 단을 만난 자리에서 자기의 지성이 담긴 노란유림주목과 선

유림주목이 조선에 널리 퍼져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기쁨을 드릴수 있다면 최대의 영광으로, 행복으로 간주하겠다고 절절히 말하였다.

본사기자



## 전화의 나날에 취해주신 조치

사랑의 내각결정

평시도 아닌 준엄한 전화의 시기에 전반적무상치료를 실시할데 대한 내각결정이 채택되고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받을수 있게 되었을 때 온 나라 인민은 감격에 목메였었다.

그 때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런 뜻깊은 내용의 교시를 하시였다.

물론 오늘 우리의 형편은 좀 곤란하다. 그러나 우리는 인민들의 생명을 적극 보호 증진시키기 위하여 무상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민들

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이렇듯 숭고한 인민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이시기에 자그მ도 부족하고 의로시 설들도 파괴된 속에서 국가 부담에 의한 전반적무상치료제실시라는 거대한 사명을 안아오실수 있었기이다.

어찌 무상치료제뿐이랴. 전화의 나날에 채택된 인민사랑의 내각결정들은 공화국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세인을 놀래우는 영웅적 위훈을 남김없이 떨칠수 있도록 한 힘의 원천으로 되었다.

포연속에서 설계된 미래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조선이 불속에서 솟아오른다.》

《...날마다, 시간마다 평양은 전설에 있는 금세처럼 폐허속에서 부활하고있다.》

이것은 조선에서 전후복구건설총계획도가 공개되자 세계가 터진 경탄이다.

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다 알수 없었다. 과연 어떻게 포연속에서 승리의 레일이 설계될수 있었는지.

주제40(1951)년 1월 어느 날 이른새벽, 목적으로 파괴된 평양시를 돌아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는 이 재더미를 밀어제끼고 새로운 평양, 가장 문명하고 아름다운 현대적도시를 일떠세워야 한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전쟁승리를 굳게 확신하시고 때로는 최고사령부에서 설계일군들에게 복구건설방향도 밝혀주시고 때로는 작전도에 승리의 화살표를 그으시던 색연필로 설계도면에 표식을 하시며 가르쳐주기도 하신 수령님이시였다.

전후복구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는 이렇게 가려져있던 전화의 나날에 마련되었다.

본사기자

에 류태없는 령도자의 사랑과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한 전쟁이었다.

사랑과 믿음은 그 어떤 무기도 대신할수 없는 위대한 정신력을 분출시킨 싸우는 조선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었다.

가려져있던 전화의 나날한 군인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하여 베풀어주신 위대한

는 그의 가족을 구출해올데 대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수직, 기술적으로 우세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와 한사람이 열, 백을 대신하여 관가리결정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었던 준엄한 시기에 한 전사의 가족을 위해 1개 연대를 직후에 파견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명령을 전달받고 한 일군은

##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한 전쟁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주제40(1951)년 11월 어느 날 한달동안에 적기를 5대나 쫓벌군 나어린 영웅들사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대단하다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그의 이름과 나이, 고향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전사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개성에서 멀지 않은 적구에서 살고있다는 사실을 아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는 일군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피흘려 싸우는 전사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며 지체하지 말고 가서 연대를 직후에 있는 전사의 고향으로 보내자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하여 1개 연대가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한 전사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펴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전쟁시기 병사들과 인민들을

마련해주신 사연 등 가슴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일화들이 오늘날도 전설처럼 전해지고있다.

싸우는 병사들의 건강이 넘어뜨리시어 세계전쟁사에 없는 화신휴양소도 내오도록 하시고 전사들의 식생활을 걱정하시며 손수 산나물표본집도 만들어보내주신 사랑, 고산진의 수수한 농가에 드시여 집주인이 울린 닭을 사양하시고 닭알까지 고스란히 돌려주신 이야기며

추위속에서 고생한 서울시민들을 생각하시어 겨울철엔 무가치 마련하여 강에 띄워 보내주신 이야기 등 전화의 나날에 꽃피던 감동깊은 사랑의 이야기들을 다 전하자면 끝이 없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베푸시는 크나큰 육친적사랑은 전쟁에 떨쳐나선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이 무적의 힘을 날게 하고 용맹을 떨치게 하였다.

불뽕은 적의 화구를 한몸으로 막은 영웅전사들, 수류탄뭉치를 안고 적진을 향해, 적장크를 향해 맞받아 찬간 육탄용사들, 더 많은 총탄과 포탄을 싸우는 고지마다에 보내주기 위하여 결사전에 떨쳐나섰던 군수공업부문에 떨쳐나섰던 전직식량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린 후방의 녀인들...

전화의 나날에 인민군인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이 모든 영웅적위훈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힘이

김대봉